

## 보도자료

## 충남도당

2019년 6월 18일(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당: 박종만 정책부장(010-2740-985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 개최 이해찬 대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최대한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관 별실 3호에서 제 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남도당이 주관한 이번 협의회는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어 기구 충남도당위원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승래 대전시당위 원장,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장),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허대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충청권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의회 공동주제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가 적힌 꽃을 충청권 지도에 붙이는 퍼포 먼스를 진행하며 충청권 상생발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이해찬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내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말했다.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번 당정협의회 공동주제인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충청 권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역 정차역 설치 문제를 거론하며 "2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며 "(천안아산역에 정차 하지 않으면)지하구간 45.7km 작은 안전사고가 있어도 큰 사고로 확대 될 위험성이 있다" 지적하고 "충남인구가 260만이며, 충남에서 처안아산 이 평택~오송 간 유일한 도시"로 정차역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충남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등에 대한 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7일 청주에서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2030충청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미세먼지 공동대응 ▲충청권 광역교통체계구축 ▲4차산업혁명 충청권 상생벨트 구축 등 공동주제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동주제 중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제안설명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에 충남도와 대전시만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역차별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지역성장을 견인할 공기업 추가이전을 위한 충청권의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자리 관련 공동발전 과제'제안설명에서 LG생활건강 일반산단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제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LG생활건강 일반산단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태양광·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 일자리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이나 충남은 이미 공 공관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빠졌던 것 같은데, 이후에 발생한 인재채 용 문제는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결과라 아쉽다"며 "이 부분은 현재 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용역결과가 올해 말쯤 나올 것"이라며 "지난 번 추진한 10개 혁신도시 중 일부는 성공적 으로 정착했고, 성공적이지 못한 곳도 있다. 근본적인 평가작업을 거쳐 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